

히가시쿠시로 패총

쌍각류 조개와 굴조개의 껍데기 및 토기 파편이 버려진 더미가 구시로 강가에서 발견되었으며, 이는 선사시대에 인류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려줍니다. 구시로에는 약 7,000 년 전 최종빙기가 끝나고 홋카이도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분리된 후 인류가 정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

히가시쿠시로 패총은 크고 작은 11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져 분포되어 있습니다. 각각 깊이는 최대 80cm 이며, 구시로 습원에서 약 15m 높은 대지 위에 U 자형으로 늘어서 있습니다. 이 패총은 면적 120m×90m의 취락 유적에 있으며, 약 6,000년 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이 시기에 사람들은 이곳에서 정착 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했습니다. 당시 구시로 습원은 바다에 잠겨있었기 때문에 이 유적은 해안선에 있었을 것입니다.

이 지역의 사람들은 항상적인 취락을 확립했으며, 연중 수렵, 어로, 채집을 병행하며 살았습니다. 이 패총 근처 고지대에서는 조몬시대(기원전 13,000 년~기원전 500 년)부터 사쓰몬시대(서기 600~1200 년)까지의 다양한 양식의 토기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. 토기는 조몬시대를 거치며 크게 발전했습니다. 이곳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토기 양식은 이 지역에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정착해 살았음을 보여줍니다.

고고학자들은 조개껍데기 및 토기와 함께 방사형으로 배열된 돌고래의 두개골, 붉은 산화철이 뿌려진 기르던 개와 큰바다사자의 유골도 발견했습니다. 이런 발견은 이곳에서 의식이 거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.

또한, 히가시쿠시로 패총에서는 몇몇 구덩이에서 인간의 전신 유골도 발굴되었습니다. 이 유골들은 구부정한 자세로 원형 구덩이에 매장되어 있었는데, 이는 조몬시대 중기의 매장 관행과 일치합니다. 이 박물관에서는 조개껍데기를 포함한 실제 패총의 단면도와 함께 조몬시대 무덤의 복제품과 토기 파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